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소식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12월호가 나왔습니다. 남풀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도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묵상집 1년 구독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 : 11/1~11/30) 구독료의 일부는 선교비로 지원 됩니다.
- * 1년 정기구독 가격: \$60.00 (1권당 5불/ 매달신청 가능)
- * 신청 - 도서부

• 추수감사주일 안내

다음 주일 (11/23)은 추수감사 주일예배로 드립니다. 지나온 일 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셔서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 신년 축복 부흥성회

일 시 : 2026년 1월 16일(금) ~ 18일(주일)

강 사 : 광주한 목사 (한국 베다니감리교회 담임)

• THE CONNECT 집회 안내

일 시 : 11월 26일(수) ~ 29일(토)

장 소 : 달拉斯 중앙감리교회

주 관 : GMC 한미연회

문 의 : 교회 사무실

• 재정부 안내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각 사역장 또는 팀장님께서는 재정부에서 준비한 양식으로 2026년 한해 사업 계획과 관련 예산을 11/30까지 재정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구자현 장로

• 실만한 물가 제 5 호 글 모집

성도님들의 울림이 있는 ‘실만한 물가’ 다섯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 모집내용 : 신앙 간증문, 부흥회를 비롯하여 에스라 성경대학, 말씀묵상학교 소감문, 선교지 이야기, 사역 이야기, 속회 이야기, 수필, 시, 여행기, 서평, 비즈니스 소식 등 성도님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한 편의 글이 누군가의 마음에 쉼과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진한 은혜의 울림이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 원고 모집 기간 : 2025년 11월 30일 까지 * 문의 - 최예영 권사

• 교우동정

[등록] 박순이 집사님 (954-367-2977) 가정이 새로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예배 및 모임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묵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수요 기도회 (Wed. by Zoom) / 7:30 pm
제자훈련 (Thur./Biweekly) / 6:3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권태홍 목사
- EM-다문화, Youth/ 김학섭 목사 • 유초등부/ 이지연 전도사
- 유아유치부, 미디어/ 윤성민 전도사
- 아이티 선교센터/ 김승돈/김미애 선교사
- 성가대/ 1,2부. 지휘- 심성애, 반주- 윤미아
- 경배와 찬양/ 리더- 유철우, 키보드- 김선영
- 교회사무/ 김숙형
- 동시통역/ 안현정 안진석 윤수미 김학섭 노재승
- 방송, 미디어/ 주일- 김동규 양재일 윤훈로 이정석 박우성
새벽- 이운섭 정철조 김학섭

지난주 현금 통계 : 총 합계 \$11,528.00

일반현금 \$11,328.00	십일조: \$8,052.00	감 사: \$1,090.00
주 일: \$1,350.00		기 타: \$836.00
건축현금 \$30.00	약 정: \$ 30.00	
선교현금 \$170.00	속 회: \$170.00	

** 온라인 현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제44권 46호

2025년 11월 16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감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2025년도 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남풀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담임목사

권태홍
Rev. TaeHong
Kwon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mcosf.org

< 성령강림후 스물세번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 송영 Doxology / 살아계신 성령님

▲ 찬회기도 Prayer of Repentance

▲ 사죄의선포 / 인도자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시도신경

찬송 Hymn / 428장(통488)

내 영혼에 헛빛 비치니

기도 Prayer / 김동규 권사

찬양 Choir / 호신나 찬양대

- 하나님의 전능하신심을 찬양 -

교회소식 Announcement 영성광고

▲ 봉헌 및 봉헌기도 Offering 다같이

▲ 성경봉독 Scripture 골(Col) 2:1-3 다같이

설교 Sermon 권태홍 목사

골로새 교회 이야기(26)

< 위로의 사람 >

The Story of the Colossian Church (26)

A Person of Comfort

▲ 파송찬송 Closing Hymn/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 축도 Benediction 권태홍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5년 11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11월 16일	1부	사랑교구	담당자	김동규권사	충성교구
	2부			김혜숙권사	
다음주 11월 23일	1부	사랑교구	담당자	구자현장로	믿음교구
	2부			윤기향장로	

금주의 말씀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Col) 2:2~3

<설교 요약>

alleluia.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 그리고 넘치는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도했고, 그들이 견디고 오래 참을 가운데 흔들림 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간구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상처 속에서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견디이며,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의 평강이 자리 잡도록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의 근본이시며, 화평의 복음이요 충만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에 채우겠다는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따라 힘써 수고하며, 이는 자신의 힘이 아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넘어가며 바울은 골로새뿐 아니라 라오디케아 성도들, 그리고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자신이 얼마나 힘쓰는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라오디케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으로 책망 받았던 교회였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계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확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편함과 어색함을 넘어 먼저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힘써 수고한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골 2:2). 당시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의 미혹과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 로마의 핍박 아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위로였습니다. →

<설교 요약>

바울 자신도 사방에서 환난과 두려움 속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합니다(고후 1:8, 7:5). 그러나 그는 디도를 통해 큰 위로를 받습니다. 디도의 방문과 위로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소식이 바울의 마음에 다시 기쁨을 일으켰습니다(고후 7:6-13).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고후 1:3)으로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 위로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와 라오디케아 성도들에게 바로 이 위로를 전하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몸이 같아 있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도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그리고 바울처럼 멀리 있는 이들까지 품고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울처럼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디도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우리 곁에 오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가 또 다른 위로를 낳는 삶으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 소그룹 나눔 질문 >

1. 올해 내가 고백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2. 최근 내 삶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견딤’이 필요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3. 나는 누군가에게 디도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된 적이 있나요? 혹은 최근 내가 누군가에게서 위로를 받은 경험은 무엇인가요?
4. 내가 지금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오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세요.

금주 예찬 섬김

	금주 (11월 16일) 간혜옥, 간성수집사		다음주 (11월 23일) 윤경순권사
	법사감사		법사감사